

16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Chapter

마 18:21~35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 155장 (전부)

오늘 배울



말씀

1.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음을 압니다.
2.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음을 압니다.

마음 열기

이 사람의 이름은 ‘에드윈 스탠턴’입니다.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국방 장관을 맡아 링컨을 도왔으며, 링컨이 암살을 당했을 때 자원하여 조사를 맡은 사람입니다. 링컨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그는 “링컨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링컨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라면서 진심으로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링컨의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링컨을 알잡아 보고 무례한 언어와 행동으로 링컨을 골탕 먹였습니다. 심지어 링컨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스탠턴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이해하기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떤 임금에게 일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품삯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란트는 6억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만 달란트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 어마한 금액으로 종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놀랍게도 임금은 종을 불쌍히 여겨 그 엄청난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 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붙들어 그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며 감옥에 넣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진노하여 그 종을 다시 잡아들여 꾸짖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입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자신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큰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처럼 우리가 용서받은 것의 60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찮은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형제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즉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웃을 용서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복음을 깨달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마 18:21~22)

Then Peter came to Him and said, "Lord, how often shall my brother sin against me, and I forgive him? Up to seven times?" Jesus said to him, "I do not say to you, up to seven times, but up to seventy times seven. (Mt 18:21~22)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시 103:8~14)

(마 5:44~48)

(고후 2:7~10)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로마서 12장 17~21절을 읽고 다음에 답해 봅시다.

1.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17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 됩니까?
2.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에 대해 복수하는 것을 정당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18~19절)?
3. 만일 내가 복수하지 않는다면 악인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며 나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19절)?
4.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20~21절)?
5. 나는 위의 말씀에 동의하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한 이웃을 지금 마음속에서 부터 용서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진짜 엄마는~



예쁜 아기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천사같습니다. 방긋 방긋 웃을 땐
정말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아기가 동네 아주머니들 속에
있을 때는 누가 엄마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똥을 싸면 누가 엄마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똥 기저귀에 손이 가는 건 바로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결벽증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아기의 똥 기저귀에는 손이 갑니다.
내 아이가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하기 때문에 더럽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더럽다는 생각보다 내 아이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위기와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 68:19)

존 플러머를 용서한 김 폭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2년 6월 8일, 미군 전투기가 베트남 사이공 근교 트랑 방(Trang Bang) 마을에 네이팜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12시경, 베트남 해방 전선 병사들이 트랑 방 마을을 급습하여 점거했고, 이로 인해 베트남 정부군과 베트남 사이에 마을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군은 중화기로 마을을 포격했지만 베트남도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전투가 길어지자, 오후 4시경, 정부군 여단장은 마을을 폭격하기로 결정하고, 미군에 폭격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미군이 함상 공격기인 ‘스카이 레이더’기를 동원하여, 무차별 폭격을 시작했고, 마을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3,000도의 고열로 반경 30미터 내의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는 끔찍한 폭탄에 마을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와 불꽃에 휩싸였습니다. 주민들은 쓰러졌고, 평화로웠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때, 전선에 3도 화상을 입은 채, 알몸으로 울부짖으며 달아나던 벌거숭이의 한 소녀가 카메라 앵글에 포착되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판 티 김 폭(Phan Ti Kim Phuc, 1963~)이었고, 당시 나이 9세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제외한 전신 65%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두 사촌과 두 동생은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고, 김 폭은 옷에 불이 붙자 이를 벗어던지고 울부짖으며 거리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트 기자의 도움으로 남베트남 코레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17번에 걸친 피부 이식 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팜탄의 화염을 피해 알몸으로 달아나던 김 폭양의 사진을 찍은, 당시 AP통신의 사진 기자 닉우트(Nick Ut)는 <전쟁의 공포>라고 제목을 붙인 이 사진으로 1973년 풀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존 플러머(John Plummer 1947~)는 이 사진 때문에 고통과 번민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당시 네이팜탄을 투하한 전투기의 조종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그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고통과 번민 속에서 살았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 소녀를 찾아가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당시 미국과 베트남은 수교가 되어 있지 않아 입국도 불가능했고, 입국을 한다하더라도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고통하는 플러머의 모습을 본 친구들은 “당시 그 마을에 민간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작전본부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에 너의 책임은 아니다.”라며 위로했지만 존 플러머의 마음엔 여전히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결혼 생활도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부인의 인도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버지니아주 푸르셀빌의 베다니 감리교 연합 교회 목회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1996년 5월 마지막 월요일, 미국의 현충일인 Memorial Day, 재향군인의 날, 존 플러머는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식에서 바로 그 사진의 주인공인 김 폭을 만나게 됩니다. 김 폭은 평화의 화환을 바치기 위해 그 자리에 왔고, 존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것입니다. 기념연설에서 김 폭은 비록 아직도 화상의 통증은 계속되지만, 이제 자신은 그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진엔 보이지 않지만, 제 모습의 뒤에는 수천의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팔다리가 잘려 나간 사람들, 완전히 넘어진 시체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폭은 “이제는 마을을 폭격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라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서서 함께 평화를 위해 일할 것을 호소하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속에서 존 플러머는 자기도 모르게 군중을 헤치며 단상 쪽으로 나왔고,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단상을 내려오던 킴과 극적으로 상면을 하게 됩니다. 존은 자신이 바로 24년 전 그녀의 마을을 폭격한 조종사라고 밝혔고, 두 사람은 약 2분 정도의 짧은 대화의 시간을 가집니다. 플러머가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자 킴 폭은 팔을 벌려 그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용서했어요.” 그날 저녁 이 두 사람은 호텔에서 다시 만났고, 존은 킴의 용서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식탁에서 함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후 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2분 동안의 짧은 대화가 지난 24년 동안의 악몽을 깨끗이 지워 버릴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은 선물이었습나다. 그저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자기와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플러머를 킴 폭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그 비결로 월남전 이후에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를 용서한 그리스도 덕분에 그녀 역시 플러머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두 아이의 엄마가 된 킴 폭은 평화 운동가, 유엔 친선 대사, 아동복지 운동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전 세계를 돌며 화상 환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킴 폭은 아들의 이름을 후안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어로 ‘앞날의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용서를 받은 존 플러머 역시 현재 감리교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십자가의 용서를 선포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